

가금티푸스 공포, 빗장을 걸면 해결이 안된다

□ 취재/김동진 기자

1. 가금티푸스의 심각성

'92년부터 국내 채란 양계업에 피해를 나타내기 시작한 가금티푸스는 '94, '95년 여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채란농가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처럼 질병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뉴캐슬, 추백리, 가금티푸스 질병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겨울에는 가금티푸스의 발생율이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95년 겨울에는 꾸준히 발생되어 온

사례들을 볼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범업계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한 올 여름 채란업의 전망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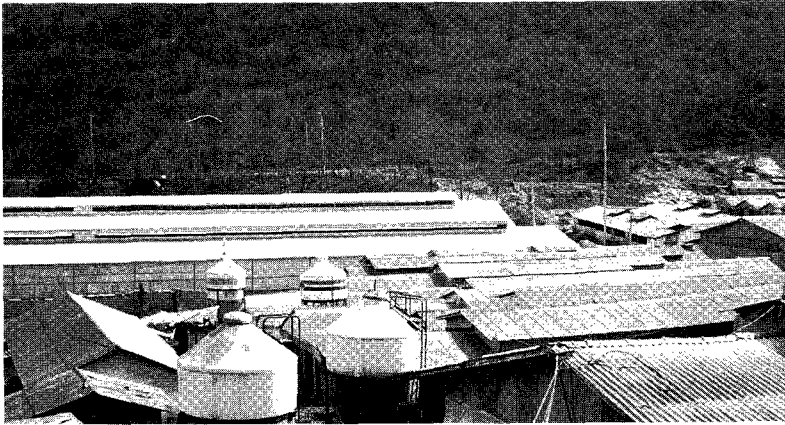
한 약품사에서 경기도 일원을 대상으로 가금티푸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0~80일령 된 닭들을 대상으로 혈청을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금티푸스 양성반응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질병의 심



△ 2년여 동안 가금티푸스와 일대 격전을 치러온 윤형수 사장

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한번 가금티푸스를 경험한농가는 아무리 계사를 소독하여도 적당한 예방치료를 병행하지 못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양계장이 밀집해 있는 봉골농장 전경

지난해 까지만 해도 난계대 감염에 따른 수직감염이 문제가 되어 종계장 방역관리가 큰 관심거리였으나 지금은 계군과 계군사이 농장과 농장사이의 수평전파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질병이 실제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은 농장을 방문, 사례를 듣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취재를 하여 정리를 하였다.

2. 가금티푸스 발생현장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에 위치한 봉골농장(대표 윤형수, 50)은 양계업과 양돈업을 병행하고 있는 축산단지에 속해 있다. 양계경력이 30여년된 윤형수 사장은 '77년 봉골마을에 정착하면서 현재 10만수

규모의 채란시설을 갖고 있는데 2~3년동안 질병에 시달린 탓에 현재는 7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봉골농장에 가금티푸스가 처음 찾아든 것은 '94년 여름, 재래계사에 중추 5,700수를 구입하면서 부터이다. 처음에는 갑작스런 폐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각종 항생제를 비롯해 효험이 있다는 약(심지어 간치료제, 우유제제 등)을 써보았지만 하루에 200수씩의 폐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2,300수를 폐기처분시키기에 이르렀으며 새로 신축된 자동화 계사('94년 신축)에 신계군 22,500수의 계군에까지 전염되어 가금티푸스의 판정이 난 상태에서 백신치료와 항생제를 병행해 가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치료에 열을 가했으나 별다른 손을 못쓰고 1일 500~600수씩의 폐사계를 치우는 일이 일과로 자리잡혔고 나중에는 닭장에 들어가기 싫어 인부들을 시켜 치우다 결국 50%폐사를 보이는 시점에서 전량 폐기처분을 시켰다.

당시만해도 가금티푸스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및 예방대책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약품값만 한달에 400여만원정도가 들어갔으며, 당시 피해액만을 계산해도 1억2천여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 설상가상으로 '94년에 24,500수규모의 자동화 시설(1호계사)이 완공된데다 '95년에 2호계사가 설치예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금압박과 함께 어려움은 더욱 컸다.

결국 '94년 피해를 경험하고 난 후에 다시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양계를 포기하라는 결론밖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동병상련에 처한 농장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정보를 입수하였다.

'94년말 당시 인근에 위치한 K농장(13만수 규모)의 경

우 산란피크가 93%까지 오른 5만수 계군이 가금티푸스로 판정이 되어 기초접종(겔백신)을 끝낸후 오일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있었는데 접종스트레스로 사료섭취가 감소하여 2주후 산란율이 45%까지 떨어졌으나 그후 2주(접종후 35일)동안 다시 회복되어 90%까지 산란율이 올라가 이상없이 계군을 관리한 예를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병아리때부터 예방접종을 잘 하면 가금티푸스는 문제없이 퇴치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감염되었던 신계사(B동)를 물청소는 물론 소독을 통해 케이지

사이사이까지 청소한 후 '95년 8월 24,000수 중추(90일령)를 입주시켰으나 폐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98%의 가금티푸스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계군은 이미 모 중추농장(5만수규모)에서 가금티푸스로 판정이 난 계군이였다.

그 당시 96%의 양성반응을 검진한 한 약품회사에서는 이 중추농장에 폐기처분을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 농장에서 타농장에 팔지않는 조건하에 다행히 티푸스 겔백신을 접종하고 봉골농장에 24,000수를 몰래 팔아버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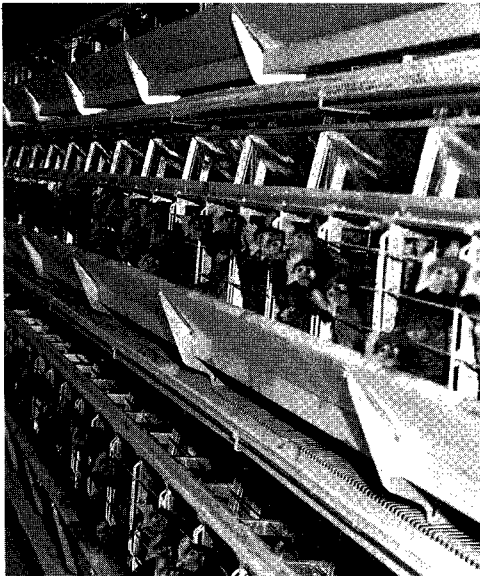
이다. 이 사실을 알게된 윤사장은 당장 회수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옆질러진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알게된 백신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오일백신을 권유받고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110일령된 닭들의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한수씩 직접 접종을 하였다. 그 결과 접종반응으로

2주정도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으며 초산일령이 10일정도 늦춰졌으나 폐사가 하루 8~10수 정도(일반폐사보다 약간 높음)로 낮춰져 지난 1월 산란피크기에는 90%가까이 산란율을 기록하는 등 현재는 큰 이상 없이 산란에 가담하고 있다.

3. 백신 기초접종이 최선책

이를 계기로 가금티푸스 예방과 치료에 어느정도 확신을 얻은 윤사장은 '95년에 새로 건축한 2호계사에 중추를 구입하여 백신접종을 한 결과 1호계사 보다는 큰 스트레스 없이 현재 160일령에 초산이 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1호와 2호계사의 계란이송벨트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1호계사는 이미 이 질병에 오염되었던 곳이라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이를 통해 어느 질병이든 기초접종이 가장 중요함을 재인식했는데 겔백신은 80일령 전후에 다리에 접종하고 오일백신은 100일령 전후에 앞가슴에 접종을 하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접종반응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약회사에 따르면 겔백신은



△ 예방접종을 받고 현재 초산중(160일령)인 닭들이 건강하게 사육되고 있다.

역가가 3~4개월밖에는 지속하지 못하고 오일백신은 11개월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일부 농장에서 젤백신만으로 예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병의 퇴치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윤사장은 채란인들을 만나면 백신의 중요성을 설명하지만 약품회사와의 결탁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와 함께 믿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말한다. 심지어 바로 옆동에서 양계를 하는 주민이 지난해 가금티푸스가 들어와 치료와 예방법을 설명하고 백신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항생제 위주로 치료하다가 결국 계사를 모두 비워 현재는 업을 포기한 상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금티푸스의 발생을 경험한 농장이나 발생된 농장들의 공동된 문제는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설을 꺼리는 것이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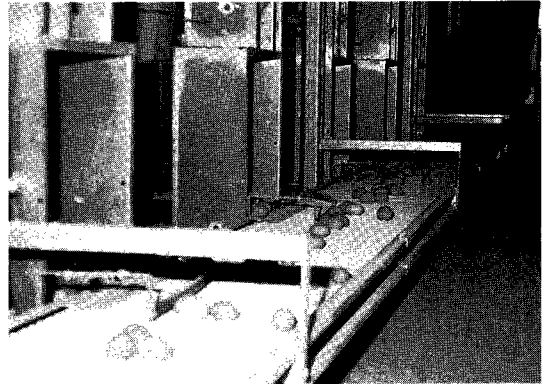
또한 정부나 연구계통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만 반복해온 것이 사태를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양

계업을 보호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제도 같은 것이 없이 발생농장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해결유도책도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사장은 양계업을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양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4. 결 론

가금티푸스의 피해를 받은 농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의욕상실에 의한 관리소홀로 폐사에 대한 감각이 무뎠다는 것이다.

즉 이병은 닭이 살아있는 한 도태시까지 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닭장가가 싫어져 더욱 관리에 소홀해지게 되므로 질병확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치료를 하다 결국 포기한 농가는 결국 업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 학계, 협회 등에서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



△ 1호와 2호계사가 같은 계란이송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티푸스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

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할 단계인 것 같다.

현재는 일부 업체에서 이 질병에 대해 연구한 결과 예방치료에 상당부분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집중반응을 최소화 시키고 저렴한 가격에 사양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보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관련업체들이 합심하여 가금티푸스 뿐 아니라 타 질병에서도 단계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완전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종계장, 중추농장, 실용계농장도 방역의 기본 원리를 지키며 사양관리에 충실을 기해 나가는 것이 단시일내에 거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이 입증되고 있다. **양기**